

더살복지, 복지사각지대 해결사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임실군, 복지정책·농촌 현실 간극 좁히기 위해 결성... 자체 서비스 제공

임실군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등으로 농촌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껏 양적 성장에 치중한 복지체계는 농촌 현실과 쏠려지지 않는 차이로 복지사각지대 증가와 체감도를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농촌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임실군은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더살복지)'을 조직해 해결 카드로 제시했다.

지난 2015년 7월 민선 6기 심민군수 공약사항으로 아심차게 추진한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소소한 민원이나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다.

'더살복지'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을 '복지이장'으로 선정한다.

회의, 리플릿,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재능기부단을 연중 모집하고 복지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읍·면 자체 관리로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도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첫해는 136가구, 지난해는 380가구, 올해는 4월 현재 22가구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지역민이 직접 해결에 나서 복지체감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군은 사업 수행 능력 향상과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읍·면별 2인 이내를 선정해 우수활동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 사례를 알리고 활동 독려를 위해 3개 우수 읍·면을 선정해 군수표창과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사면 원서마을 이모씨(여/85세)는 차상위 계층으로 거동이 어려워 전 등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지이장은 이씨 가구를 방문해 생활속 불편 요소를 확인한 후 안방,

거실, 부엌 전등 및 문 손잡이를 교체했다.

관촌면 하삼마을 복지이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씨(남, 50) 가구를 방문해 방충망과 비가림 막을 설치하고 형광등을 교체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복지이장과 복지단은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지 체감도가 높다. 또한 복지체계의 농촌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일석 사조의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 복지는 지역민 손으로'를 모토로 최일선에서 지역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지역을 넘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율적인 민·관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이해만큼 보인다' 공무원 현장 교육

순창군이 지역을 바로 알고 지역의 발전 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최근 3년내 임용된 신규직원 38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교육은 '순창을 알아야 순창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건강장수연구소를 비롯해 육천인계수, 공공성마장, 쓰레기매립장, 소득개발사업포, 친환경연구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군의 10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복지·교육·농업·관광·특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직원들이 군정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사업장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으며 해당부서 계장들이 직접 설명에 나서 교육생들이 사업에 대해 최대한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특히 9일 2일차에는 마지막 적성면 섬진강 뷰라인 탐방을 마치고 난 뒤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난산도론도 진행됐다. 교육은 프로듀서형 공무원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로듀서형공무원은 현장중심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힘을 이끌어 내 결집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브랜드를 만들거나 특화산업을 일구어 내는 능동적 공무원을 말한다. 군은 이번 교육이외에도 프로듀서형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 진행돼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깊게 고민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지역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프로듀서형 공무원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로듀서형공무원은 현장중심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힘을 이끌어 내 결집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브랜드를 만들거나 특화산업을 일구어 내는 능동적 공무원을 말한다. 군은 이번 교육이외에도 프로듀서형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장마 대비 임도사업 현장 기술자문 실시

임실군은 지난 9일 장마를 대비해 '임도사업 안전점검 및 현장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군은 4억3천여만원을 투자한 2017년도 간선임도 신설사업(2km)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안면 금거리 산88번지 임도 사업 현장에서 진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문단을 비롯해 지방산림청, 지자체, 산림조합 담당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임도 설계서와 시공상태를 비교 분석하고 임도시공 공종별 현장기술 지도, 우수 및 성토면 안정적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재해에 안전하고 경관을 고려한 효율적 임도시공을 위한 현장 기술자문 및 장비에 대비한 시설 현장 관리요령 등을 습득했다.

군은 기술자문을 통해 현지조건에



부합하고 산불예방, 임업생산성 향상, 농산촌마을 교통개선 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 건설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섬진강 댐 준공 후 순창도로미 개설로 지역민의 주거 및 영농 불편이 큰 만큼 오는 2018년 추가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기술 자문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임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건강한 요리 체험교실' 진행

순창군이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요리 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기르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지역 순창북중학교 학생 50여명을 대

상으로 오감만족 '건강한 요리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전국 최초의 건강장수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바쁜거리 요리체험 교실을 운영해 학생시절부터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화재 피해 농가 일손돕기

화재로 주택전소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를 위해 임실군 공무원이 힘을 모았다.

지난 9일 관촌면사무소,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3명은 지난날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장평마을 귀농인 구모씨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2의 인생 출발선에서 화재피해도 삼의 터전을 잃은 농가에 희망을 주기 위해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주택 폐기물 처리와 8천300㎡ 사과나무 부지포 씨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주변환경 정리를 병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바이오매스 건립 반대한다'

남원시는 최근 광치동 소재에 조성 중인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환주 시장은 6일 발전소 부지 인근 광치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40여명과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발전소 사업의 그 동안 추진사항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당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정부가 권장한 정책 사업으로 건설투자 및 고용창출(30명)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유치하였으나,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여,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시에서도 시민과 함께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보

임실군은 최근 아쟁진드기에 매개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아쟁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감염병으로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경로당을 방문해 예방수칙을 설명하고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및 토시 등의 사용을 당부하며 안전 물품을 배부하는 등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않기 ▲야외작업 시 작업복 입고 장화신기 ▲야외활동 후 물린 자국 확인하기 ▲웃은 털고 세탁하기 및 샤워하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가뭄대비 종합대책 본격 추진

TF팀·대책상황실 운영... 농경지 용수 공급 상수도 누수시 긴급 복구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최근 이상기후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가뭄에 따라, 가뭄해소시까지를 가뭄대책 TF팀 및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가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올해 현재 강수량은 197.7mm로 평년의 63%, 저수율은 58.7%로 평년(66.1%)의 88.9%이며, 가뭄단계로 볼 때 저수율은 평년대비 80%이상에 해당되어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발견적자의 가뭄피해가 우려되어「주의단계」로 보여 실시간 가뭄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TF팀은 총괄상황반, 농업분야 대책반, 상수도분야 대책반, 공업분야 대책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되어 관계부

서와 상시 근무체계를 확립·가뭄상황 관리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할 계획이며, 특히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뭄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가뭄정후가 보이는 즉시 대응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지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합동대책추진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키로 했다.

농업용수와 관련, 사면면 등 가뭄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기대책으로는 소형관정 개발 긴급배정, 양수장 및 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한발대비 용수개

발사업 지원(안방관정, 저수지건설, 가뭄막이), 읍·면·동 보관양수기 활용 하천수 농경지 용수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대책으로는 안방관정을 착정하여 가뭄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생활용수와 관련, 지방상수도(동화댐·월라정수장)는 정상생산 및 공급에 지장이 없으나, 가뭄 지속 시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에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 지하수(개인정호 등) 이용 유도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활용·공급하고 각 읍면동별 차량 및 마을차량 이용 운반급수 실시, 상수도 누수발생시 즉시 긴급복구 작업을 실시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